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 뎅기열로 입원치료 2일 만에 현지에서 사망
- 올해 아시아 지역의 폭우 및 하천 범람으로 뎅기열 매개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사망자 급증
-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모기물림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특히 재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지는 뎅기열의 특성 상, 사업/연수 등으로 지속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동남아 및 서남아 방문에 앞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 숙지, 방문 후 뎅기열 의심증상 발생 시 공항·항만 등 국립검역소에서 신속검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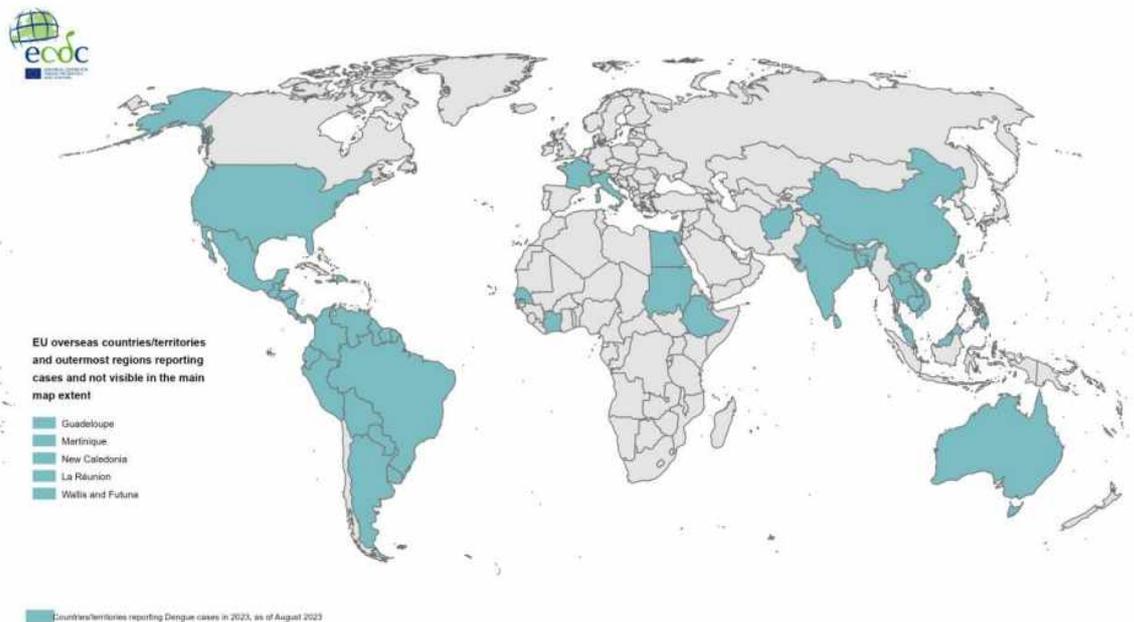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하였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3년 8월 현재 뎅기열 발생 국가/지역



이번에 우리 국민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방글라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명의 환자와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뎅기열 우세 혈청형이 바뀌면서(DENV3→DENV2) 재감염으로 중증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23.8.11.).

현재까지 뎅기열은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대부분 유행국가 방문 후 감염되었다. 올해 뎅기열 환자는 8월 26일 기준 1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배 증가하였다. 주요 감염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많았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중 뎅기열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 연도별 뎅기열 환자 발생현황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자수 (명)	72	149	252	165	255	313	171	159	273	43	3	103	107

* 2023년은 8.26. 기준이며, 잠정통계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7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뎅기열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공항) 인천, 김해, 청주, 무안, 대구 / (항만) 부산, 평택,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울산, 마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뎡기열 위험국가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여 우리 국민에게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 우리 국민의 뎡기열 관련 사건·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 확인 방법 : 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안전공지

**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및 서남아시아(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공관 게재

- <붙임> 1. 검역단계 뎡기열 신속진단검사 안내문
 2. 뎡기열 국외 발생 현황
 3. 뎡기열 예방 포스터

질병관리청 <주관>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황경원 (043-719-7160)
		담당자	연구사	이소담 (043-719-7175)
질병관리청 <협조>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하 (043-719-920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욱 (043-719-9218)
		담당자	역학조사관	박한울 (043-719-9213)
외교부 <공동>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책임자	과 장	양제현 (02-2100-8201)
		담당자	행정관	편정은 (02-2100-8208)

뎅기열 신속진단검사 안내문



검사기간

2023년 7월 ~ 11월

검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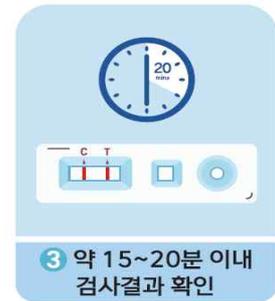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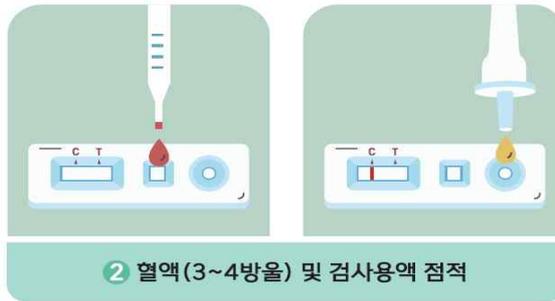
동남아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뎅기열 감염이 우려되는 자

* 단, 주사 후 과민반응이 있거나 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검사 불가

검사종류

뎅기열 신속키트(항원·항체)검사

* 신속검사결과 양성인 확인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비용

무료

기타사항

여권, 항공권 등 여행이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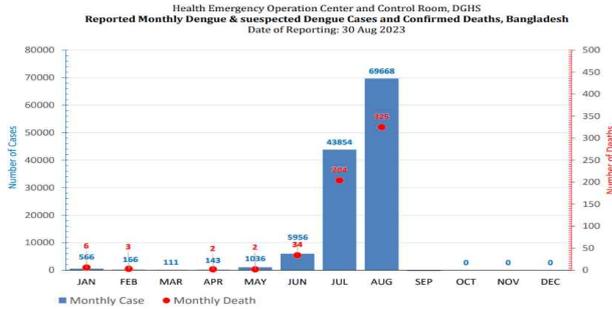
연번	국립검역소명	전화번호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6, 2740, 3404
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8~9
3	국립김해공항검역소	051-973-1922
4	대구국제공항	053-986-7696
5	국립마산검역소	055-981-5300
6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41
7	무안국제공항	061-452-0961
8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81, 0620
9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10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1
11	청주국제공항	043-214-4546
12	국립평택검역소	031-682-5213
13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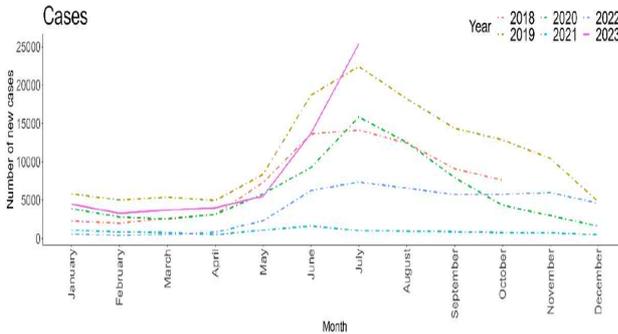
뎅기열 국외 발생 현황

- 뎅기열은 129개 풍토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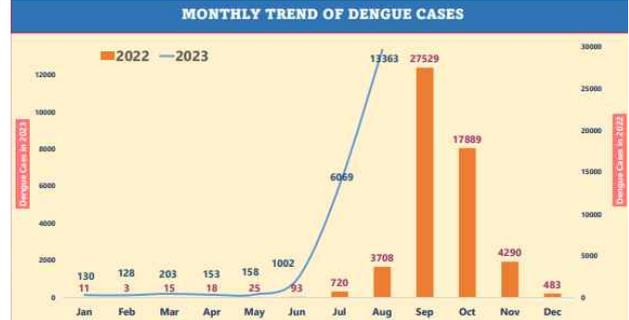
주요 위험국가 2023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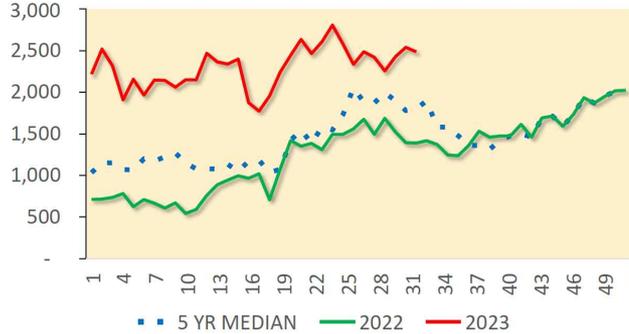
<방글라데시> 2023년 누적 121,500명 발생, 사망 576명



<태국> 2023년 누적 73,979명 발생, 사망 70명



<네팔> 2023년 누적 21,216명 발생, 사망 13명



<말레이시아> 2023년 누적 73,680명 발생, 사망 53명

- 2023년 주요 국가별 발생 및 사망 현황

단위(명)

국가	발생	사망	발생보고일
브라질	2,569,746	920	'23. 8. 28.
페루	164,231	325	'23. 8. 28.
방글라데시	119,133	569	'23. 8. 29.
필리핀	85,692	299	'23. 7. 22.
말레이시아	73,680	53	'23. 8. 12.
콜롬비아	67,944	44	'23. 8. 12.
태국	73,979	70	'23. 8. 23.
베트남	61,799	14	'23. 8. 29.
인도네시아	35,694	270	'23. 6. 4.
인도	31,464	36	'23. 7. 31.
라오스	23,432	14	'23. 8. 27.
네팔	20,145	13	'23. 8. 27.
싱가포르	5,956	0	'23. 8. 29.
대만	3,026	3	'23. 8. 28.

<자료출처: 세계보건기구, 각국 보건부, 언론보도 등>

질병관리청 1339
국민건강콜센터

뎅기열 바로알고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하기

매년 약 390백만명이 뎅기열 감염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남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128개 국가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사람이 물려 감염됩니다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는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숲모기류이며, 물웅덩이, 페타이어 등 물 고인 곳과 풀숲 등에 서식합니다.

뎅기열 예방수칙 4가지!

1

**여행전 국가별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감염병-해외감염정보-
해외감염병NOW)

2

**여행 중
모기예방물품
준비하여 활용**

모기퇴치를 위한 예방물품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을 준비하여 사용

3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첫번째 감염과
다른 뎅기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경우
중증열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 필요

4

**귀국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하고
치료받기**

의심증상 : 발열, 발진,
심한두통, 안와통증, 근육통,
관절통 등